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**2023. 3. 17.(금) 15:30** 2023. 3. 18.(토) 조간	배포 일시	2023. 3. 17.(금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양현수 (044-202-8804)
		담당자	서기관 윤종호 (044-202-8811)

중대재해는 줄이고,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.
「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」 출범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3.17.(금), **'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'을 마련**하기 위해 **「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」을 출범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포럼은 **학계·전문가, 관련 업계 종사자** 등으로 **구성**했으며,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, 관련 법령,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**논의를 진행**해 나갈 예정이다.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**'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'을 올해 상반기 중**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.

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**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을 통해**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**'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'**으로 **전환**함에 따라, **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**이 되는 **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**

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**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가 활성화**되고, **전문인력 양성** 등을 통해 **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**되는 등 **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또한,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**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***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**안전보건산업 육성**을 통해 **새로운 일자리를 창출**할 수 있는 **기회로도 활용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* 안전산업 전체 시장은 '23년에 5,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('안전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과제', '17년 산업연구원)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**안전산업의 수준**은 그 사회의 **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**로서, **우리나라**의 **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**은 **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**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.” 라고 전하면서,

“이러한 차원에서 **안전보건산업 육성**은 **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**이라는 **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** 있는 **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** 중 하나가 되었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“이를 위해, **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**을 지켜줄 수 있는 **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**시키고, **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**해 줄 수 있는 **안전보건서비스 분야**도 **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**해 나가겠다.”라고 전하면서, “안전보건산업의 **정확한 실태를 파악**하고, **체계적인 지원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**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.”라고 하였다.

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“여러분 모두가 **근로자의 생명과 안전,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**을 가지고 **포럼에 임해**주시길 부탁드린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[붙임] 「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」 개시 회의 개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」 개시 회의 개요

□ **일시**: ’23.3.17.(금) 15:30~17:00

□ **장소**: 서울 로얄호텔 제이드룸 (3층)

□ **참석자**

○ **(고용부)**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산업안전보건정책관,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등

○ **(외부)** 전용일 교수(성균관대), 하지원(에코맘코리아 대표), 조용원(산업연구원 연구위원) 등 포럼 위원 9명

□ **상세 일정** ※모두 발언까지 공개

시간	세부 일정	비고
15:30~15:33	모두 발언	산업안전보건 본부장
15:33~16:03	**<논의사항>** 1. 안전산업의 현황 및 시장 동향 2.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운영계획(안) - 향후 포럼 논의 주제(안) 중심으로 논의	
16:03~	자유 토의 - 포럼 운영 방식, 향후 논의주제, 일정 등	